**로저 그린 박사,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강의 24, 복음주의**©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이것은 24번째 세션인 복음주의입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주님, 앞으로 일주일을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회고해보면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 종교 개혁을 기대하며 열린 이 컨퍼런스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그리고 연사들이 여기 와서 안전하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이번 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학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휴가가 다가오면서 다음 주에 좋은 주를 기도하고, 사람들이 여행할 때 좋은, 안전한 여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후의 다음 주를 위해.

그래서 학기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배운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학을 형성한 남성과 여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경우처럼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살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 동안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요.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 기독교와 20세기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세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된다면, 잠깐 여기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언급했죠?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9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를 했고, 꽤 놀라운 사람이고, 이 타임 기사와 타임 표지와 타임 기사에서 보여 주듯이 대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럴드 존 오켄가 와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급했나요, 제 말은, 강의 중 하나에서 그의 이름이 꽤 눈에 띄었던 걸 알아챘나요? 여러분 중에 그 자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Harold Ockenga가 언급되면서 그의 이름이 꽤 눈에 띄었습니다. Ockenga 에서 멈췄나요 ? 두 명이 있습니다. Carl FH Henry와 Edward Carnell을 언급했나요? 그 두 이름을 언급했나요? 좋아요.

이 모든 것을 형성한 세력과 사람들에 관해 언급할 이름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에 칼 FH 헨리를 언급했지만, 그의 날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날짜가 있습니다.

칼 FH 헨리는 근본주의적 감각으로 자랐고, 그가 이탈하여 얼마 전에 사망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는, 200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J. 카넬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에드워드 J. 카넬은 가장 중요한 신학자, 말하자면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매우 도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칼 FH 헨리는 카넬이 1967년에 일찍 죽었기 때문에 카넬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꽤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칼 FH 헨리는 그보다 오래 살았고, 또한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오켄가 와 마찬가지로 풀러 신학 대학의 설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풀러 신학대학은 1947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선도적인 복음주의 신학교가 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복음주의적 사고를 진정으로 전파하기 위해 그들은 헨리와 카넬과 같은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을 매우 좋은 급여와 매우 낮은 교육 책임으로 고용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에 대한 생각을 더 광범위한 학술 커뮤니티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여러분은 꽤 놀라운 것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은 헨리와 카넬 같은 사람들의 어깨 위에 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꽤 놀라운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 놀은 자신을 분명히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비슨의 티모시 조지는 자신을 분명히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풀러의 초대 총장은 해럴드 오켄가 였습니다 . 그래서 해럴드 오켄가는 풀러의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길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가 아직 파크 스트리트 교회를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스턴과 패서디나 사이, 파크 스트리트 교회와 풀러 신학대학 사이를 꽤 오랫동안 오가며 통근했습니다. 흥미로웠죠. 하지만 이들은 분명 몇몇 지도자들, 제가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측면에서 복음주의의 초기 지도자들입니다.

몇 분 후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몇 가지 세력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1942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복음주의자들, 오켄가 와 헨리와 다른 사람들은 NAE라고 불리는 것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42년에 이 집단이 근본주의에서 공개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근본주의 교리를 높이 평가했지만 모든 교리를 높이 평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근본주의 교리 중 많은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주의의 내부 갈등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은 근본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멈추자 그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과 그들이 생각하기에 반지성주의의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중요해졌고,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을 형성하는 또 다른 형태는 크리스천 투데이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출판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195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개신교 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들이 20세기 초에 시작한 Christian Century라는 잡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1956년에 Christianity Today와 함께 왔고, 그들만의 정기 간행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Christianity Today가 Christian Century보다 수십만 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크리스천 투데이를 사는 사람의 수와 크리스천 센추리를 사는 사람의 수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주의가 파산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hristian Century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여전히 꽤 널리 유통 되고 있습니다 .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Christianity Today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 신학에 매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모든 기사와 글은 기본적인 기독교 신학과 신학적 범주, 신학적 용어, 성경 신학에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Christianity Today가 좀 더 목회적인 사역, 조금 더 가벼운 Christianity-lite에 더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는 Christianity Today의 위치에 대한 그런 종류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는 이 과정을 가르쳤고, 많은 학생들을 만났고, 그들을 꽤 잘 알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Christianity Today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의 아버지가 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날 무렵에 그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정신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강의가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그가 기분 나빠하는지 보아야 할까요? 그냥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저는 그냥 내버려 두었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 투데이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약간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주의 형성 측면에서 교파적이든 아니든, 실제로 교파적 교회이든 아니든, 자신을 복음주의라고 규정하는 교회가 확실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 교회나 회중 교회, 심지어 성공회 교회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식별은 우리가 복음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거나 Christianity Today가 쓰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힘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론 복음주의와 동일시하는 대학과 신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풀러 신학교와 물론 고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Adonai와 Judson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Gordon은 188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에 1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Barrington College는 19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고든이 우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풀러 신학대학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고든-콘웰 신학대학원, 애즈베리 신학대학원, 댈러스 신학대학원 같은 곳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1947년에 설립된 많은 신학교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초기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과 신학교는 확실히 복음주의와 동일시됩니다. 고든 칼리지, 당신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든 칼리지는 자신을 복음주의 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고든 칼리지에 대해 복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든 칼리지는 우리 자신을 근본주의 칼리지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고든 칼리지의 학생들이 그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고든 칼리지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고든 칼리지의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고든 칼리지가 복음주의 칼리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든 칼리지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그 용어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낯선 용어가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사용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고든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비종파적이거든요. 흥미롭죠.

좋아요. 글쎄요, 물론, 우리가 복음주의에 부여한 정체성 표식은 분명 복음주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복음주의를 형성하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고든에 들어올 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여러분 모두 고든 칼리지에 왔을 때, 첫날 문을 열고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복음주의 칼리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었나요? 그게 중요했나요? 아니면 그렇죠, 루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응.

좋아요. 복음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있나요? 좋아요. 글쎄요, 어쨌든 복음주의에 대한 몇 가지 표식과 복음주의를 식별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복음주의의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믿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배링턴 칼리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배링턴 칼리지이고, 왼쪽은 고든 칼리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겪고 있는 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와 21세기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교리를 살펴보고 약점을 살펴보기 전에, 복음주의자들은 많은 뛰어난 학자들을 배출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들 중 일부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 복음주의는 우리에게 꽤 놀라운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이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조지 마스든은 미국 생활의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역사가입니다. 그는, 오, 4년 전, 어쩌면,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정판 전기를 출판했는데, 시간이 있다면 정말 읽기 좋은 책입니다. 여름 독서 목록에 추가하세요. 하지만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은퇴했지만 노트르담에서 가르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학교인 노트르담에서 복음주의자가 가르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마크 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들었던 마크 놀은 휘튼 칼리지와 오랜 세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이고, 헌신적인 복음주의자이며, 제시가 언급했듯이, 저는 그가 복음주의적인 방식에 감격했습니다. 사실, 학자로서의 그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든 칼리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가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한 공개 연설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르담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역사가 니콜라스 월터스도르프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히고 예일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중에 Waltersdorf의 연설을 우연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그의 연설을 들었지만, 매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Alistair McGrath를 언급했는데, 나중에 그의 책 중 하나를 읽어볼 겁니다. 하지만 Alistair McGrath는 옥스포드에서 가르칩니다.

그는 성공회 사제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가 두 개 있습니다. 생물학 박사 학위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은 과학과 신학을 꽤 잘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만 가질 수 있지만, 그는 두 개를 얻습니다. 그래서 Alistair McGrath는 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Alan Wolfe는 Atlantic Monthly에 The Opening of the Evangelical Mind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이제, 앨런 울프는 전혀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Atlantic Monthly의 훌륭한 유대인 작가입니다. 이 기사, 사실, 저는 여기 기사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Alan Wolfe가 캠퍼스에서 이 기사에 대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The Atlantic Monthly의 긴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Atlantic Monthly가 Alan Wolfe에게 와서 미국에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가서 조사해서 다 알아내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Alan Wolfe는 여러 복음주의 기관을 방문했고, 그에게 정말 깊은 인상을 준 기관 중 하나는,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일리노이주 휘튼에 있는 휘튼 칼리지였습니다. 그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복음주의 기관을 살펴보고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복음주의 교회에 갔을 때, Alan Wolfe는 자신의 인정에 따르면, 학문적 수준을 발견했기 때문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헌신의 수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가 결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설교를 찾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근본주의적인 장소와 모든 것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우연히 매튜 런딘 강의에 참석한 사람이 있나요? 휘튼 칼리지의 역사학자 매튜 런딘? 참석했나요? 그의 아버지이자 저의 아주 친한 친구인 로저 런딘이 휘튼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앨런 울프가 방문해서 기사에서 언급한 수업 중 하나는 휘튼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로저 런딘의 수업이었습니다. 그는 로저 런딘의 장학금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매튜는 그의 아들이므로 휘튼에서 두 번째 세대의 런딘이 가르쳤지만, 그는 이 복음주의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복음주의자인 로저 런딘에게서 발견한 학문적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로저는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 기사에 대해 대중 앞에서 함께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앨런 울프의 생각은, 제가 말했듯이, 그는 스스로 복음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정신의 개방에 대한 이 기사는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글쎄요, 여기 있습니다. 저는 몇 명의 이름만 언급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은 이름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Roger Lundin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지금, 제 말은, 좋은 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의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주의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에 헌신합니까? 운동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습니까?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럼, 좋아요,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가 근본주의의 매우 강력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주의, 헨리와 카넬과 같은 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진정한 반지성주의 전통, 그리고 확실히 반과학적 전통, 확실히 반문화적 전통에서 자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말은, 복음주의의 첫 번째 교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영, 신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결국 마크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두 번째 것은, 저는 모르겠지만, 마크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해 매우 높은 견해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확실히 그들은 성경의 영감이나 성경의 권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성경 이야기, 성경 저자의 의도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주로,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이 한 일은, 이번 주말 강의에서 들었듯이, 복음주의자들이 한 일은, 마크 노아와 함께 들었듯이, 복음주의자들이 한 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종교 개혁의 이해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크 놀은 성경, 개혁자들의 성경 의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바를 표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책에서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책이 있습니다. 옥스포드 교수이지만 헌신적인 복음주의자인 Alastair McGrath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을 보세요.

제목은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입니다. 흥미로운 제목인데, 그는 기독교의 미래가 복음주의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고, 복음주의자들이 기독교의 모든 것의 미래로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언가를 언급합니다.

64페이지에 있는 작은 인용문 하나.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복음주의자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는 성경에 충실하려는 견해는 복음주의적 교리의 다양한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복음주의적 견해로 존중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주의 내에서 완전한 획일성을 요구하는 자들은 동료 복음주의자들만큼이나 성경에도 구속을 가합니다. 성경이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이고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명확하지만, 방금 언급한 실제적 현존의 본질이나 선호하는 성직자 복장 스타일과 같은 다른 교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혁가 필립 멜랑히톤은 이러한 문제를 아디아포라, 즉 의견 불일치가 용납될 수 있고 용납되어야 하는 무관심한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진심으로 믿는 관점이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무미건조한 가정이 아니라, 모든 성경적으로 정당화된 관점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복음주의적 주장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알리스테어 맥그래스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주의자들이 항상 성경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료 복음주의자들에게 우리가 성경에 대한 특정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문장에서 모든 관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적으로 정당화된 관점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은 그런 종류의 복음주의의 두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또는 복음주의의 세 번째 종류의 교리는 성령의 주권일 것입니다. 이제,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주의자들보다 성령을 더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웨슬리안 전통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오순절 전통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카리스마 전통은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많은, 확실히 복음주의자들, 성령을 더 강조한 특정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에게 성령의 강조는 중요한데, 복음주의자들이 삼위일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번째는 마크 노아가 이야기한 Sola Scriptura입니다. 그는 개인적 회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종류의 정체성은 확실히 복음주의의 또 다른 교리입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성,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신자의 정체성. 이제, 그 개종 이야기가 일종의 즉각적인 개종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시다시피, 제가 그리스도께 온 날과 시간, 분을 말할 수 있든,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하는 것에 더 가깝든 말입니다.

제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온갖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야기, 성경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 번, 마크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또 다른 세입자는 전도나 전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은 온갖 종류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큰 모임에서 훌륭했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부르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나 휘트필드, 피니, 지금은 그레이엄, 무디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코스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마크 노아는 학자이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전도사입니다. 그는 학문과 강의 등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은 많지만 전도는 우선순위입니다. 오, 그리고 토요일 신문 중 하나에서 알파 코스를 언급했습니다.

알파 코스에 대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알파 코스는 실제로 영국의 성공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이지만, 그것은 전도의 한 방식이며, 지역 교회가 이웃을 교회로 초대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종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알파 코스입니다. 당신은, 루스,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듯합니다. 나머지 여러분은 알파 코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공회이고, 영국의 성공회 교회에서 나온 것이고, 복음화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종류의 교리는 강한 사회적 양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이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를 볼 때 일반적으로 강한 사회적 양심입니다. 복음주의가 먼저 웨슬리안 운동에서 뿌리를 찾고, 그다음 경건주의, 웨슬리안 운동에서 뿌리를 찾는다고 생각한다면, 피니와 같은 19세기 부흥주의자들은 오그던 게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최신식으로 교육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사회적 양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복음주의자로서 그 사회적 양심을 유지했는가입니다. 몇 분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볼 질문입니다. 복음주의의 또 다른 종류의 교리는 인정이며, 우리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에큐메니즘에 대한 티모시 조지 논문에 누구라도 있었습니까? 당신은 있었습니까, 제시.

다른 사람? 에큐메니즘 강의에 참석했나요? 글쎄요, 그는 에큐메니칼 대화에 참여하는 복음주의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를 대표합니다. 모든 진리는 기독교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고, 진리와 헌신은 많은 교파에서 발견되며, 정통주의에서 발견되고, 로마 가톨릭교에서 발견되고, 개신교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진리 발견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것은 개혁자 이후로 사실입니다.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자신들이 매우 헌신적인 로마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매우 진실하고 충실한 로마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교회 전통에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고 , 개신교 교파에는 충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에 대한 그런 종류의 헌신은 복음주의자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알리스테어 맥그래스가 말한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주의는 교파를 초월합니다. 복음주의는 모든 교파를 넘나듭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발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우리가 이야기한 교리는 많은 교파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책에서 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복음주의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복음주의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운동으로서의 복음주의 자체는 초종파적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비판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주의의 마지막 교리는 복음주의의 미래가 어떤지,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가 어떤지 분별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미래가 어떤지 분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Alistair McGrath는 복음주의의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언급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종교 개혁 컨퍼런스에서 주말에 있었던 여러 논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미래의 복음주의, 미래의 복음주의 운동은 복음주의가 공공 정책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의 세계이며, 참된 신자는 이 세상을 위한 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믿음에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국 비전을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공공 정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listair McGrath가 여기서 언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언급한 두 번째 것은, 물론, 복음주의자들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 관해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 도덕적 문제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복음주의자들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자들은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서 로마 가톨릭교도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에서 동방 정교회 기독교인들과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그 공통점을 찾아 나아가세요.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에 대한 논문의 일부는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과 공통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마지막 교리입니다. 그럼, 좋아요, 잠깐 멈추겠습니다.

복음주의의 교리. 복음주의의 교리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복음주의가 무엇이고 고든 칼리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교리를 언급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한다면, 복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게 전부입니다.

복음주의의 미래 의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Alistair McGrath와 같은 사람들이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복음주의자들,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까? Alistair McGrath의 답은 우리가 공공 정책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는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공 정책, 아마도 복음주의자들이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Walter Rauschenbusch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신뢰하고, 믿습니다. 좋아요, 그는 사회 복음 운동의 아버지였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Rauschenbusch에 대한 최근의 전기에서는 그를 복음주의자로 규정합니다.

글쎄요, 그가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월터 라우센부쉬가 뉴욕시에서 공공 정책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막지는 못했고, 그다음에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그는 결국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택과 더 나은 주택에 대한 공공 정책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제가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주택을 더 좋게 만들고 주택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공공 정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스가 로어 이스트 사이드 테너먼트 박물관을 봤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월터 라우센부시가 본 것을 봤다면, 그가 더 나은 주택이라는 공공 정책 문제에 관여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관여했지만, 그는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좋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좋아요, 그게 교리예요.

사람들이 묻는다면, 복음주의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E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주의의 약점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도움이 필요할까요? 복음주의의 약점에 관해서 좋은 소식은 복음주의자들이 약점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를 바라보면서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바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위대한 신학자를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자신의 문제와 말해야 했던 것과 말하지 않은 것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설교자와는 대조적입니다. 신은 오늘 아침 설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만, 결코 어떤 종류의,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을까? 내가 어디에서 바로잡혀야 할까? 내가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할까? 그래서 , 저는 이러한 약점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우리에게 지적한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네 가지를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회의 풍부한 전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주의의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풍부한 전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2,000년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역사에는 풍부함이 있습니다. 전통에는 풍부함이 있습니다.

전례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복음주의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작은 지역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처럼 말합니다.

그가 시작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는 사도행전으로 바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그 풍부함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만난 제 친구 앤디 반덴버그를 기억하세요. 아시다시피, 그는 120명의 작은 교회가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 세상에서 유일한 참 교회라고 생각했던 곳에 왔어요. 다른 모든 것은 배교적이었어요. 인생에서 그 지경에 도달한다면, 당신은 절망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종종 그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풍부한 전통을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강력한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19세기 복음주의 전통의 사회적 헌신에 충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매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재판되었습니다.

도널드 데이튼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도널드 데이튼은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복음주의자인 도널드 데이튼은 자신을 복음주의자이자 훌륭한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도널드 데이튼은 19세기를 돌아보며, 19세기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는 19세기를 발견했고, 19세기에 노예제 폐지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싸우고, 반드시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다른 노예제 폐지론자들과 팔짱을 끼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니와 같이 노예제 폐지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복음주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캐서린 부스와 같이 성경 때문에, 성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성경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에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복음주의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19세기에 발견한 것은 이 복음주의자들이 위대한 사회적 대의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20세기 중반에 그의 책을 썼을 때 발견한 것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적 대의에서 물러났고 사회적 대의에 관여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다소 충격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는 Discovering an Evangelical Heritage라는 책을 썼습니다.

복음주의 유산은 무엇인가? 복음주의 유산은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책을 쓰면서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60년대 시민권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오염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onald Dayton, Discovering an Evangelical Tradition.

그런데 데이튼의 책보다 훨씬 최근에 나온 책이 또 있어요. 네, 생각날 거예요. 하지만 정말 흥미롭죠. 좋아요, 세 번째 책.

확실히 복음주의자들 사이에는 지적 얕음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지적 얕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일, 우리의 숙제를 우리가 해야 할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 복음주의적 마인드의 스캔들은 컨퍼런스에서 몇 번 언급되었습니다. 마크 놀은 1990년에 그 책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블록버스터였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복음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그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머, 아시다시피, 이것은 복음주의자가 동료 복음주의자들에게 여기에 스캔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숙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되어야 할 최고의 일류 학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이 복음주의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20년 후에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고, 마크는 복음주의가 이룬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우리에게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던 또 다른 책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저자만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양심에 관해서는, 그는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Consci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마크 놀의 제목을 가져와 약간 변형했습니다. 복음주의 양심의 스캔들.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양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간 Eastern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게 복음주의자들의 문제인 지적 피상성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문화에 대한 적응, 문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문화에 적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화에 말하고 문화에 책임을 묻도록 촉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와 너무 비슷해서 우리와 밖에 있는 일반적인 더 넓은 문화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든-콘웰 신학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친 데이비드 웰스는 God in the Wasteland, The Reality of Truth in a World of Fading Dreams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복음주의자 데이비드 웰스가 동료 복음주의자들이 문화에 굴복하고 충분히 반문화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맹렬히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읽어보면 숨이 멎을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약점에 대한 좋은 점은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주의가 복음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되어야 합니다.

복음주의 양심의 스캔들에 대한 이름은 아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누군가가 당신의 컴퓨터에서 잠깐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사이다, 론 사이다, 사이더, 론 사이다, 복음주의 양심의 스캔들 .

좋아요. 음, 우리의 마지막 강의, 바로 전 강의는 근본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어떤 의미에서 근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이고 복음주의가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주의가 형성되었을 때,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 복음주의, 몇 년 동안은 있을 거고,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듣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지금은 Alistair McGrath가 쓴 복음주의와 모든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하기 때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것이 되려면 이러한 비판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복음주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1분 정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는 수요일에 시작할 Theological Developments from Dietrich Bonhoeffer to the Pres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위해 이틀에서 사흘을 할애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수요일과 금요일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휴가 기간 동안은 일주일 내내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강의가 5일 있지만, 하루만 더 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 두 날은 본회퍼에 대한 영화를 찍고, 두 날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할 테니까요. 좋아요,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기는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여기는 24번째 세션인 복음주의입니다.